



문용린 이사장은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개선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라지지 않는 학교 폭력... 이젠 사이버 공간으로

코로나19 시대에도 학교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학교 폭력의 무대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재단이 최근 발표한 ‘학교 폭력·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6.3%로, 지난해(5.3%)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 폭력은 피해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더 심각하지만, 현장 가까이에서 자리하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유린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학교 폭력의 양상은 20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더 은밀하게 사이버 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교 폭력 발생 이유,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
학창 시절 상처 극복 안 돼 ‘학폭 미투’ 계속되는 것
가해자·피해자 분리 앞서 진정한 사과와 화해 필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유훈과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청소년들의 행동 가능 영역이 넓어져 학교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 폭력은 선진국병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폭 미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 폭력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을 중심으로 ‘학폭 미투’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학교 폭력 ‘재연 현상’이 크게 발생했다.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학교 폭력이 벌어진 당시 피해 극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투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개선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상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피해자를 보호해 추가로 발생 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문 이사장은 “둘 사이에 화해와 용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 조치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피해자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고통 속에 그대로 남겨지게 된다”며 “학교 폭력은 발생 즉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감정은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같은 또래로부터 받은 수모감은 수십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감정이 아닌 거죠. 피해 학생들에겐 ‘내가 얼마

나 아팠는지’보다, ‘내가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가 더 중요해요. 학교 폭력을 일반 범죄와 동일한 시선으로 봐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해요.”

담임 교사가 학교 폭력 해결 과정에 적극 나서야

그러면서 문 이사장은 담임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학교 폭력 해결 과정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학교 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회복이 잘된 경우는 대부분 교사가 중재를 하며 화해의 장을 마련한 사례”라고 역설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부담일 수 있겠지만, 담임교사가 두 아이의 관계에 집중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은 녹록지 않다. 그동안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담임 교사가 배제된 채 행정적 판단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분석이다. 해결 방안도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이사장은 “학교 폭력 대처 방향의 틀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부모들끼리 싸우다 결국 재판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개입하게 되고, 결과에 불공정이 생길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며 “우선 가해 학생과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임 교사 역할 중요... 적극적 개입으로 해결 노력
학교 폭력 인식 개선 시급... 교내 예방 교육 강화
학생들의 민감도·자제력 높아지면 사건 줄어들 것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하는 폭력도 있다. 이렇게 시작된 일종의 괴롭힘과 폭력은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더 큰 피해를 남게 된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0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 폭력 가해 경험을 한 응답자의 28.1%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학생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폭력의 기억은 평생 이어질 수 있는 고통입니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와의 화해가 병행돼야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겁니다.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선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바로 그 방법 중 하나인 거고요.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예방 교육이 잘 이뤄진다면 학생들의 민감도와 자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학교 폭력 사례는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입니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학교 폭력 대처 방향 근본적으로 틀려... 피해자 치유에 집중해야”

[인터뷰] 문용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前 교육부 장관)

“학교 폭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해’와 ‘용서’입니다.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핵심인데, 현장에선 학교 폭력 사건을 일반 범죄 사건처럼 취급해버리는 게 문제죠.”

문용린(74)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그는 현재 청소년 폭력 예방 전문 기관의 수장으로 학교 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오래전부터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다. 문 이사장은 “사건의 당사자들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인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 등이 개입되다 보니 학교 폭력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 폭력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기자

입 학 문 의 | 031-760-3336
카카오톡채널 | @ICT폴리텍대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대학

높은 취업률
84.1%
2020.02.28

경상권
평가우수대학
도보 5분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뉴딜 선도대학

ICT폴리텍대학

2022학년도 수시 1차 모집
2021.9.10.(금)~10.11(월)

미래인재장학금 혜택 확대 실시!

입학생 2년간 등록금, 100% 장학금 지급
(단,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이동통신학과
정보보안학과 (*2022학년도 신설)
정보통신학과
스마트통신학과
멀티미디어통신학과

기술job고
취업job고

ICT폴리텍대학
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가천대 제공

논술전형 919명… 서술형 교과논술 시행 지역균형 전형,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어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는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반도체전공(50명) ▲스마트팩토리전공(50명) ▲스마트시티융합학과(50명) ▲스마트보안전공(50명) 등 4개 학과를 신설하고 올해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이점을 활용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변화와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커리큘럼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감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천대는 소프트웨어 강화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천대는 지난 2020년 국내 학부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AI)전공을 신설했으며 2021학년도 입시에서 모집인원을 150명으로 대폭 늘렸다. 앞서 2002년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단과대학을 설립했으며, 2015년에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에 선정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전 교생 SW교육을 의무화하고, 2019년에는 SW Passport(인증제) 제도도 도입했다. 가천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2단계 사업에 연속 선정됐다.

이은철 가천대 입학처장은 “가천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역량인 ‘창의력’과 ‘융합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창의 융합 프로그램 ‘엔트리(Ntree)캠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수시, 3034명 모집

가천대는 2022학년도 입시를 통해 총 4565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한다. 수시로 약 67%인 3034명을 모집하고, 정시로 33%인 1531명을 선발한다.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다. 919명을 선발하며 논술 고사 60%와 학생부교과 40%를 반영한다. 수능 이후 치르는 논술고사는 인문·자연계열 모두 국어와 수학 교과로 출제되며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논술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서술형 교과논술이라는 점이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반영해 출제되는 교과논술은 고교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고교 정기고사 서술형 문항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될 예정이다. 논술전형의 학생부교과 등급별 배정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등급별 5점 차이다. 반면, 논술고사는 15문항에서 1문항 배점이 10점으로 학생부교과의 실질 반영 비율이 높지 않아 논술고사 시험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설한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교별 추천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100%로 10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 학생부교과 60%와 면접 40%로 선발한다. 또한

가천대학교

면접은 수능 이후에 실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나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면접 50%를 반영해 선발한다. 올해부터 학부로 선발하는 약학과는 의예과, 한의예과와 같이 가천의 약학전형으로 뽑는다.

◇과기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2단계 사업 연속 선정… SW 전문 인재 양성

가천대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2단계 사업에 선정돼 최대 6년간 110억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지난 2015년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까지 연속 선정된 대학은 수도권에서 가천대와 성균관대뿐이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은 산업체 수요기반의 SW교육과정 개편 및 SW 전공 정원 확대, SW 융합인력 양성 등 SW 전문인재 양성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교육 강화, 계열별·수준별 차별화된 SW교육과정 마련 등 SW교육 체계를 고도화하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가천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SW기초교양교육을 의무화했으며 SW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활성화해 SW 융합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가천대 전체 학과 중 19개 학과의 커리큘럼에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교과목 5개 이상을 포함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로 운영하고 있다.

김원 가천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특임 AI부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지난 1단계 사업성과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2단계 사업 비전을 높게 평가받은 덕분”이라며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교육으로 최고의 AI·SW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천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의 주관기관으로도 최근 선정됐다. 올해 차세대반도체학과를 신설한 데 이어 폐거로 벌써 가천대가 반도체교육의 거점 대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가천대 서울 길병원 2024년 개원, 대규모 의료보건의료 채용 기대

가천대 의대와 약대, 간호대, 보건과학대에 희소식이 있다. 가천대의 길병원이 올해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공모한 서울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2024년까지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위례의료복합용지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일대 4만4004㎡ 규모다. 가천대 길병원이 서울에 거점을 마련한 획기적인 전기로 병원의 본래 기능인 검진과 치료 부문으로 확대해 예방과 진료 및 치료, 관리가 이뤄지는 의료복합단지조성되며 대규모 보건인력 채용도 예상된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동국대 제공

문화재학과·약학과·AI융합학부 신설 실적/실기위주 전형, 실기 비율 70%로 확대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화쟁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불교 & 문화예술’ ‘안전과 보안(Safety & Security)’ ‘바이오 & 메디’ ‘DNA(Big Data, Network, AI)’ 4개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성화 분야의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실천적 융합교육 체제로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등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는 4차 산업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지원 사업(SW중심대학,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운영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규영 동국대 입학처장은 “동국대는 창의 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실천해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입학전형을 설계했다”며 “2022학년도 수시에서는 고교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형 간소화 정책을 유지했다. 또한 논술전형을 제외한 모든 수시모집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아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수시, 전체 모집인원의 59.9%인 1880명 선발

동국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59.9%에 해당하는 총 1880명을 선발한다. 올해 수시모집 주요 변경사항은 모집단위(문화재학과, 약학과, AI융합학부) 신설, 학생부교과전형인 학교장추천인재전형 신설, 논술전형 신설 모집단위에 따른 수능 최저학력기준 신설 등이다.

전형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o Dream ▲Do Dream(소프트웨어) ▲불교추천인재 ▲고른기회통합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서류종합 100%로 3배수(일부 모집단위 2.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더해 합격자를 가린다. ▲특성하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일괄전형으로 서류종합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신설된 ▲학교장추천인재전형은 일괄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60%와 서류종합 40%로 선발한다. 60%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는 인문계열/영화영상의 경우 국어/수학/사회/영어/한국사 교과 중 석차등급 상위 10과목을,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수학/과학/영어/한국사 교과 중 석차등급 상위 10과목을 추출해 반영한다. 고교별 추천인원은 고교별 최대 7명으로 제한하며, 동국대학교 모집단위 계열을 기준으로 계열별 최대 4명까지 추천 가능하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으며, 자기소개서도 제출하지 않는다.

350명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은 일괄전형으로, 논술 70%와 학생부 3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전형 중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최소한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하기 위

동국대학교

해 출결은 10% 반영되며, 20%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는 계열 구분 없이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한국사 교과 중 석차등급 상위 10과목만을 추출해 반영한다. 논술고사는 수능 이후인 11월 21일(일) 실시한다.

실기/실적위주 전형은 ▲국어국문·문예창작 ▲체육교육 ▲미술 ▲연극 ▲영화영상 ▲스포츠 문화 등 6개 전형에서 총 134명을 모집한다. 실기 고사의 반영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해 실기 고사의 영향력을 높였다.

◇문화재학과·약학과·AI융합학부 신설

동국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문화재학과 ▲약학과 ▲AI융합학부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문화재학과는 전통문화유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재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국대만의 특화된 학과이다. 수시모집에서는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합격자 전원에게 장학금 혜택을 준다.

약학과는 약학연구와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로 수시에서는 총 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인 Do Dream에서 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수능 최

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학과는 수능 등급 및 입학 성적에 따라 다양한 장학 혜택을 준다.

AI융합학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교육을 시행하는 학과로 교육목표에 맞게 인문/자연계열에서 모두 선발한다. 수시에서는 총 46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조합격자에는 수업료 감면 등의 장학 혜택이 있다.

◇창업 친화적 지원, 특성화 캠퍼스도 자랑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위한 대학의 지원도 강력하다. 창업동아리를 선발해 사업과 자금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해 사업과 초기 단계 구축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경영, 기술, 마케팅,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교내 교수로 구성된 멘토링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책임멘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대 매출을 올리는 창업동아리도 배출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되고 있다. 그 성과로 동국대학교는 2019 벤처창업진흥부 공공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동국대는 2011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바이오메디캠퍼스(BMC)를 개교한 바 있다. 바이오메디캠퍼스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으로 구성된 BT 특성화 캠퍼스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캠퍼스와 대학병원(동국대일산병원)이 집적돼 학생들의 교육 및 실습을 차별화했다. 특히 융합형 과학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며 지역 내 우수 초·중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꿈의 대학’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이은철
입학처장강규영
입학처장

정보보안학과 신설,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키운다

ICT폴리텍 대학

국내 유일의 ICT 특성과 대학인 ICT폴리텍대학은(학장 박재문) 2002년 12월 교육부 인가를 받아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설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지원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출연에 기초했다. ICT폴리텍대는 경강선 ‘경기광주’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

취업률도 우수하다. ICT폴리텍대는 2019년 2월 대학 자체(건강보험 가입 기준) 조사에서 전국 대학 상위권에 해당하는 84.1%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졸업생들의 주요 취업 분야는 KT, SKT, LG U+ 등 기간통신 사업체 및 계열사와 전국 1만여 정보통신공사 기업체, 방송 통신 관련 기업 등이다.

특히 ICT폴리텍대에서는 국내 ICT 관련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정보통신 분야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기술자들과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기술자들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자 교육’ ‘정보통신 감리원 교육’ ‘ICT 유망 분야의 전문 교육’ 등을 운영한다.

◇ ‘정보보안학과’ 신설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보보안학과’가 신규 개설되고 ‘미래 인재 장학금’이 확대 실시된다는 점이다. ‘정보보안학과’는 최고의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구축 및 침해 대응, 관제 등의 정보보안 운용 기술을 교육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인프라는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스마트 기기 및 사물인터넷(IoT) 등의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 정보보안학과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위협이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도록 네트워크 운용과 보안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네트워크 방호를 위한 구축, 설치, 관제 및 유지 보수하는 능력도 기르게 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의 개념과 사이버 보안 기술, 침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ICT폴리텍대는 2년제 학위 과정으로, 올해 신설되는 정보보안학과 이외에 기존 4개 학과(▲이동통신학과 ▲스마트통신학과 ▲멀티미디어통신학과 ▲정보통신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유·무선 통신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과 현장 실무에 능통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학과별 30~40명씩 총 160명을 선발, 소수 정예 인원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졸업 전까지 국가 기술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고 있다.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통신선로 산업기사, 방송통신 산업기사, 무선설비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네트워크 관리자,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등이 있다.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미래 인재 장학금’도 확대 실시된다. 학생들에게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앞서 ICT폴리텍대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 합격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인재 장학금을 지원했다. 다만 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가장학금 신청이 필수다. 성적의 경우 직전 학기 평점 3.0 이상을 충족시켜야

유·무선 통신 특화 교육 프로그램
학과별 30~40명씩 총 160명 선발
소수 정예로 이론·실무 능통한 인재 육성

‘미래 인재 장학금’ 확대 실시
입학생 2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ICT폴리텍대학 제공

한다.

박재문 ICT폴리텍대 학장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의 85%를 수시 1차에서 선발할 예정”이라며 “신규 학과 개설을 비롯해 더 커진 미래 인재 장학금 혜택으로 많은 학생이 ICT폴리텍대에서 공부하며 국내 ICT 산업을 이끄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있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

록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을 결정하게 됐다”며 “학교에서도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최고의 ICT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CT폴리텍대는 9월 10일(금)부터 10월 11일(월)까지 수시 1차 신입생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10월 21일(목)이다. 타 대학 지원 시에도 횡수에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신영경 조선예류 기자

[주목! 이 교육 프로그램] 희망친구 기아대책 ‘우리반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

코로나發 학습 격차 해소… “학생들 읽기·연산 실력 향상”



‘우리반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급 학생들이 따스함 교재를 들고 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제공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그 시기가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 개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 저하가 두드러진다. 가정에서 학습 지도나 지원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하다.

이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지난 4월부터 국내 아동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반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아대책과 좋은교사운동이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며 중하위권 초등학생들의 초기 학습 결손을 메우고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초등은 한글과 구구단과 같은 기초학습 기능의 습득이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때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학습 이해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연산은 앞으로 수학 성취 정도에 60~70%를 차지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수준의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의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기아대책은 전국 농·산·어촌 및 도시 취약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5학년 97개 학급에서 228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사전 교육을 하고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학생에게 주 3회 총 40일 동안 교육을 했다. 주요 커리큘럼은 좋은교사운동이 개발한 ‘읽기유창성’과 ‘기초연산능력’ 교재를 활용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급의 모든 학생은 프로젝트 완료 후 상당한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보였다. 중상

취약지역 초등생
2286명 대상 수업

학년 낮을수록
개선 효과 뚜렷

“교육 사각지대
지원 노력 계속”

위 수준의 학생들은 상위 수준으로, 중하위 수준의 학생들은 중위 수준으로 향상 됐다. 특히 상 또는 중상 집단보다는 중하 또는 하 집단에서, 고학년보다는 3학년 이하 학년에서 기초학력의 개선이 뚜렷이 나타났다.

읽기유창성 과목에서는 프로젝트 실시 전보다 평균적으로 이야기 글을 11.68어절, 설명글을 13.72어절 빠르게 소리 내어 읽었다. 일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10어절 정도의 읽기 능력이 향상하는 것을 감안하면 약 2달여 만에 1년의 자연적 성장 수준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인 셈이다. 곱셈 능력 역시 1분 동안 풀 수 있는 문항 수가 평균 구구단(6~9단) 기준 5.19개로 30.8% 향상됐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기 하랑초의 유명실 교사는 “작년보다 아이들의 기초연산이 많이 떨어져 걱정이었었는데,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연산 속도가 빨라지고 실력도 향상됐다”며 “이전보다 자신감을 갖게 된 아이들이 2학기는 더 활기차게 수업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기아대책의 임수진 복지기획팀 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로 사회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더해지면 아이들은 그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학습기본권을 보장받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아대책은 이번 프로젝트 이외에도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한 한글 미해득 아동, 읽기 부진을 겪는 아동 등 낮은 수준의 읽기 성취 아동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소그룹 문해력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습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방종임 조선예류 기자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NLCS Jeju 2021년 졸업생들의 졸업과 성취를 축하합니다.
올해도 IBDP 평균 39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Start here. Go anywhere.

AN EXCEPTIONAL BRITISH EDUCATION

NLCS Jeju는 4-18세 학생들을 위한 영국식 국제학교입니다.
160년 역사의 성공적인 본교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의 리더를 키웁니다.

www.nlcsjeju.co.kr 064-793-8004 admissions@nlcsjeju.kr

신입생 전원 특별지원장학금... 컴퓨터게임과·소방행정학과 첫 모집

수원과학대학교

올해 개교 44주년을 맞은 수원과학대학교(총장 정원섭)는 약 8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문대학이다. 700여 개의 가족회사 협의체와 산학협력을 극대화해 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 국무총리상, 2020년 대학연계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수원과학대는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 ▲대학연계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경기인공지능스쿨 ▲K-MOVE 스쿨 등으로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과 맞춤형 취업과정을 설계해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한다. SSC MVP 역량 인증제로 창의, 문제해결 등 학생들의 맞춤형 전공역량도 길러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수시 1·2차 1974명 모집... 전체 정원의 89% 학생부 반영 변화... 최우수 1학기 100% 적용 연기영상과 실기고사, 항공관광과 면접 치러 학과·전공·전형 관계없이 2개 복수지원 가능

또한 수원과학대는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전체 학과 평균으로 학기

당 약 280만원의 저렴한 등록금을 실현하며, 작년에는 전체 재학생 99%에게 한 종류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수원과학대 관계자는 “2022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특별지원장학금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원과학대 수시 모집인원(수시 1·2차)은 1974명이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의 89%에 달한다. ▲휴먼케어학부 ▲융합디자인학부 ▲융합테크놀로지학부 ▲융합IT학부 ▲공공인재·경영학부 ▲서비스컬처학부 ▲미래융합학부 등 7개 학부 내 38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간호학과는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통해 간호교육 인증을 받았다. 간호학과에 지원을 희망하는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간호학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학생부 반영 방법이다. 기존 1·2학년 4개 학기 중 지원자가 선택한 1학기를 반



수원과학대 제공

영한 반면 올해는 고교 내신 1·2학년 중 최우수 1학기 100% 반영으로 변경됐다. 대학자체기준 특별전형도 모집이 없었던 작년과 달리 2022학년도부터 일부 학과·전공에서 인원을 선발한다. 뷰티코디네이션과에서 헤어전공(9명), 메이크업네일전공(9명), 피부미용전공(4) 등 총 22명을, 미래융합학부는 실버사회복지과(17명), 외식조리창업과(13명) 등 총 30명을 뽑는다. 실버사회복지과·외식조리창업과는 성인학과과정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수업이 운영되며, 두 학과의 입학생들은 매해 등록금의 30%를 감면받는다.

대학자체기준 특별전형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학교생활기록부 혹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등을 준비해야 한다. 단 학교생활기록부 내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에 자격종목(자격증)이 기재돼 있는 경우 국가

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컴퓨터게임과(3년제)·소방행정학과(3년제)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미래 첨단 산업 교육과 취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컴퓨터게임과·소방행정학과는 수시 1차에서 각각 40명의 입학정원을 모집한다.

이뿐만 아니라 수원과학대는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 산업체위탁교육, 유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입학 후 전과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설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실기고사를 치르는 학과는 연기영상과 등이며, 면접고사를 보는 곳은 항공관광과가 있다. 연기영상과와 항공관광과의 실기·면접고사 일정은 10월 9일, 10일에 실시된다.

2022학년도 수원과학대 1차 수시모집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입학원서 제출 시에는 학과·전공 또는 전형에 관계없이 2개까지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2개 학과·전공 또는 전형을 초과해 지원한 경우 모두 취소 처리된다. 수시 1차·2차 모집인원의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다.

1차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는 10월 29일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섭 수원과학대 총장은 “수원과학대는 인격 함양과 인류번영에 이바지하는 교육이념을 목표로 한다”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의 교육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조선예류 기자



동아방송예술대 제공

공연예술계열·K-POP과 등 5개 학과 실기고사 치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총장 최용혁)는 국내 최초의 방송예술특성화대학으로서 ‘방송예술분야 글로벌 TOP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일본, 태국 등 20국 48개 대학, 40여 개의 기관과 학사교류 및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해 교환학생, 어학연수, 해외 인턴십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동아방송예술대는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방송·예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커리큘럼과 교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학과별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실전과 같은 강의를 펼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2022학년도 수시에서 신입생 75% 선발

동아방송예술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신입생 전체 모집인원의 75%(1·2차 총 619명)를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방송연예계열 연기 전공, K-POP 전공이 각각 방송영화연기과, K-POP과로 확대 개편됐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실기고사를 보는 실기학과는 ▲공연예술계열 ▲영화예술과 ▲실용음악계열 ▲방송영화연기과 ▲K-POP과다.

면접과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실기학과는 ▲방송기술계열 ▲음향제작과 ▲뉴미디어콘텐츠

과 ▲영상제작과 ▲방송보도제작과 ▲방송국과 ▲광고제작과 ▲디지털영상디자인과 ▲무대미술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등 11개 학과다.

성적 반영 비율은 실기학과의 경우 실기 80%, 학생부 성적 20%이며, 면접전형은 면접 60%, 학생부 성적 40%다. 학생부 성적은 1·2학년 4학기 중 상위 2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개인별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일정과 고사장은 원서접수 이후 일괄 배정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5일이다.

합격 및 등록 사항은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모집 방법이 다양한 만큼 수험생은 입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시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고 전형별 지원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지원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수시 1차 모집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실기학과와 비실기학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형에 관계 없이 2개 학과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1차 모집은 10월 4일 밤 11시 59분까지 진학사와 유예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지원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신영경 조선예류 기자



인하공전 제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공간정보빅데이터과 ‘3년제’ 개편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진인주)은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567명을 선발한다.

인하공전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험생이라면 올해 입시에서 달라진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총 24개 학과 가운데 컴퓨터정보과, 컴퓨터시스템과, 항공운항과를 제외한 21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게 그 중 하나다.

학제에 변화를 준 학과도 있다. 메카트로닉스공학과와 공간정보빅데이터과가 대표적이다. 이들 학과의 학제가 2년제에서 3년제로 바뀌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완화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기존에는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1학기 30%로 고교 전 과정을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 중 최우수 2개 학기만 각각 50%씩 반영한다.

지정용 인하공전 입학학생처장은 “특기자의 선발 기준 역시 단순화했다”고 했다. 올해는 어학 성적(입상 실적)과 내신 성적, 어학 성적과 면접 성적을 혼합해 평가하지 않는다. 일례로 인문사회계열과 패션디자인학과에서는 수시모집 시 어학 성적 소지자에 한해 면접 성적으로만 합격자를 가린다.

더불어 어학 특기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어학시험의 종류가 늘어났다.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JPT(일본어 능력시험), HSK(한어수평고시)에 텡스(TEPS)와 토플

(TOEFL)이 추가됐다.

지 처장은 “인하공전 지원자는 수시 1차와 수시 2차에 각각 한 번씩만 지원할 수 있다”며 “학과의 장점과 적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고, 특성화고 졸업자전형 비면접학과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조연도 건넸다. 그는 “면접을 보지 않는 전형에서는 내신으로만 합격자를 뽑는다”며 “소수정 단위의 근소한 성적 차이로 합격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에 지원 전 본교 홈페이지의 내신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1958년 개교한 인하공전은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 중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톡(T.O.C) 튜는 멘토링’이 그중 하나다. 톡 튜는 멘토링의 톡은 ‘Teacher-On Club’의 줄인 말.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이 전공 교수를 멘토로 두고 교양, 전공과목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다.

인하공전은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도 일부 학과에서 운영 중이다. 1년 또는 2년을 더 다니면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현재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학과, 자동차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에서 해당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수 조선예류 기자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취업률 73.2%, 수도권 북부 최상위 수준

서정대학교

올해 개교 18주년을 맞은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면·비대면 수업으로 대응하며 학생들의 교육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취·창업 경쟁력을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에도 각별히 힘쓰고 있다. 덕분에 서정대의 취업률은 수도권 북부 최상위 수준인 73.2%(2019년 12월 31일 공시 기준)에 달한다.

최근 서정대는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지원(대학 지원 사업비)을 받는다. 이에 서정대는 대학 발전 계획을 토대로 지속적

국가 기능장, 최근 11년간 39명 배출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총 5526개
간호학과만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수시 최초 합격자, 입학장학금 30만원

2013년부터 서정대 졸업자의 총 공무원 합격자 수는 128명에 달한다. 또한 항공관광과는 졸업생이 배출된 첫해인 2020년 4명이 지상직 승무원으로 선발됐다. 유아교육과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2회 연속 A등급을 받아 취업률 90%를 기록하고 있다.

서정대 학생들은 국가 자격증 취득과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최고 기술 자격인 국가 기능장 합격자는 지난 11년간 총 39명이 배출됐다. 2012년부터 서정대 학생들이 취득한 산업기사·기능사 등 자격증은 총

5526개에 이르며 국가기관장상 등 국내외 각종 경진대회 수상자는 4189명을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간호학과·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인천에 위치한 서송병원에서 실습과 취업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 서정대 관계자는 “취업연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며 “취업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시 합격자에 입학장학금 30만원 지급

올해 서정대의 수시 모집인원(수시 1차)은 828명이다. 전형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정원 내는 일반전형(527명)과 특별전형(210명)으로 나뉘며, 정원 외는 ▲농어촌 전형(10명) ▲기회균형 전형(30명) ▲전문계고졸 재직자 전형(7명) ▲서해5도 전형(13명) ▲전문대졸 전형(31명) 등이 있다. 간호학과는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통해 간호교육 인증을 받았다. 올해도 간호학과(일반전형)는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된다. 국어·수학·영어 중 3개 영역 합산 등급이 18등급으로 적용됐다. 간호학과 외 다른 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신성적 반영은 1·2학년 4개 학기 중 우수한 2개 학기 100%로 이뤄진다. 성적 반영 비율은 일반전형(정원 내)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의 경우 면접 60%(150점) + 학생부성적 40%(100점), 면접 미실시과는 학생부성적 100%로 이뤄진다. 특별전형도 학생부성적 100%로 반영된다.

면접을 보는 곳은 ▲뷰티아트과 ▲응급구조과(3년제) ▲간호학과(4년제) ▲글로벌융합복지과



서정대 제공

▲글로벌산업공학과 등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2학년도 서정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는 입학 장학금 3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서정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약 220억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했다”며 “학생들이 오롯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2개 이상의 학과 및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고교유형(인문계·특성학교·검정고시)에 관계없이 일반전형에 지원 가능하다.

면접은 10월 15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세부 시간과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면접 참석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해당 학과와 면접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10월 29일에 발표될 계획이며, 합격자 등록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영희 서정대 총장은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창의성을 갖춘 전문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고 미래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규 조선예류 기자



웅지세무대 제공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배출 ‘전국 1위’

(2020년 제57회)

웅지세무대학교

경기 파주에 위치한 웅지세무대학교(총장 최광필)는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회계 세무 전문 인력’을 양성해 21세기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창학 이념으로 2004년에 설립됐다. 공인회계사를 비롯해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꼭 맞는 학사시스템을 제공하는 3년제 전문대학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웅지세무대는 2020년 제57회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수 전국 대학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유일의 회계 세무 특성화 대학으로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세무사 시험 합격자 수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또한 2006년 이래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최연소 합격자도 다수 배출한 바 있다.

웅지세무대는 2022학년도부터 세부 전공에서 성과를 더욱 확실히 낼 수 있도록 기존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입생들은 ▲회계 세무 분야의 최고 자격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의 취득 및 실무에 적합한 회계 세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회계세무정보과 ▲7·9급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세무행정과(행정직, 군무원 교육과정 포함) ▲부동산 분야의 최고 자격증인 감정평가사 취득과 감정평가 전문가 및 부동산 전문가 배출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감정평가과 ▲공기업 취업에 특화된 NCS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실무 자격증 취득 등 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경영과 등 4개의 학과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웅지세무대가 회계 세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시험 대비 최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됐기 때문이다. 개교 이래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10시 30분까지 자기 학습을 하고, 고시반, 지도교수 상담제, 심화 학습제, 진도별 수시교사, 시험 대비 스터디 등 전문 자격증 취득과 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웅지세무대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우선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 I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올해부터 파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파주 100인 장학회 장학금’ 및 ‘발전기금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내신 또는 수능 영어 성적 3등급 이내인 학생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재학 중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시험 등에서 1차 또는 필기에 합격하면 수업료 반액, 최종 합격하면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혜택도 있다. 서덕주 교학처장은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나 세무직, 행정직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한편 수시 1차 모집은 9월 10일(금)부터 10월 4일(월)까지다. 수시 2차 모집은 11월 8일(월)부터 11월 22일(월)까지 진행된다. 웅지세무대 측은 “2021년 세무직 공무원 선발 인원이 확대됐고, 2022년부터는 선택과목이었던 세법, 회계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회계 세무대학 특성상 더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종임 조선예류 기자

1 합격, 현실이 되다!

수시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 수시 합격예측
- 대학별 종합vs교과
- 실제합격사례

합격가능성, 나와 경쟁자들의 경쟁력 확인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대학/학과별 비교 분석
과거 실제합격자 성적과 비교한 나의 경쟁력

합격 가능대학 알아보고

진학닷컴 & 진학어플라이

쉽고 빠르게 접수하라!

60만 수험생의 선택, 원서접수 1위

- 올인원
- 공통원서
- 실시간 경쟁률

전국 350여개 대학교 원서 접수 가능
한번에 작성하는 공통원서와 공통자소서
대학별 실시간 경쟁률 확인

Jinhakapply.com

수능은 체력 싸움... 아홉 가지 재료 더한 ‘녹용’으로 관리해볼까?

수험생 체력 관리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되지 않는다.”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미생’에 나온 대사다. 어디 직장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 대입이라는 장기 마라톤을 뛰는 수험생에게도 이 말은 꼭 들어맞는다.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학습의 질을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숙면, 균형 잡힌 식단 등 생활 습관 신경 써야
수능이 50여 일 남은 이때, 수험생들이 체력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으로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꼽을 수 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줄이며 새벽까지 공부하게 될 경우 오히려 집중력 감소, 체력 저하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수험생에게 충분한 수면과 식습관 중요
떨어진 기력 보충해주는 녹용 섭취 도움

맹추위 건넌 러시아産 녹용 ‘품질 우수’
편강한방연구소, 러 농장 10년 독점 계약



편강한방연구소 제공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쉬는 시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수험생은 추가로 건강식품을 섭취하기도 한다. 녹용으로 만든 건강식품이 대표적이다. 녹용은 그늘에서 말린 사슴뿔로 예로부터 원기를 회복하고 떨어진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편강한방연구소에 따르면, 2000여 년 전 저술된 약물학 서적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도 녹용의 효능이 나와 있다. ‘음양의 기운을 조절하고 비장과 신장의 기운을 도와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하며 피의 흐름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편강한방연구소 측은 “우수 학술 논문 인용지수 스코퍼스(SCOPUS)급 저널 JPBA(의학 및 생물 의학 분석 저널)에 ‘벨벳 사슴뿔의 면역 체계 향상

기능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건강식품 고를 땐 ‘원산지’ 확인

녹용 건강식품을 고를 때는 원산지를 유심히 따져보아야 한다. 사슴의 생장 환경에 따라 끝밀도가 달라지고, 이는 곧 녹용의 가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뉴질랜드, 러시아, 중국 녹용을 주로 판매하는데 러시아산이 가장 상품(上品)으로 평가받는다. 편강한방연구소는 “실제로 지난해 관세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러시아산 녹용의 수입 가격이 뉴질랜드산 녹용과 비교해 kg당 2배 정도 높았다”고 말했다. 러시아산 녹용을 ‘으뜸’이라는 의미의 ‘원용(元茸)’이라 부르는 이유다.

러시아 녹용 가운데서도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 농장의 녹용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다. 러시아 아바이스크 농장은 해발 2000m 우스

록사 고산지대에 위치한 곳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곳의 겨울 기온은 평균 영하 30도 정도다.

편강한방연구소 관계자는 “날씨가 추울수록 녹용 조직이 조밀해져 품질이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의 녹용이 다른 지역 녹용에 비해 뿔의 크기가 크고 털이 부드러운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게다가 아바이스크 농장은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사슴으로부터 절감된 녹용을 고온의 물에 담갔다 빼는 과정을 이틀 동안 반복하면서 녹용 안의 피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한 다음, 자연 건조 등의 과정을 거치는 식이다.

편강한방연구소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아바이스크 농장과 10년 독점 계약을 체결, 농

장에서 제공받은 녹용을 원료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다. 녹용을 비롯해 홍삼과 삼주, 복령, 감초, 숙지황, 작약, 천궁, 당귀, 황기 등 아홉 가지 재료 성분도 더해 ‘구전(九全)’이라 이름 지은 ‘구전녹용’이다. 편강한방연구소 관계자는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 난 제품이라는 의미를 담아 ‘구전(口碑)’이라 불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능을 앞둔 시기에 수험생 자녀의 체력 관리를 위해 구전녹용을 구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구전녹용을 구매하기 전에는 제품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이 가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됐는지 미리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 밖에 자세한 성분과 제품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은 구전녹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수 조선예류 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 뿜낸 고교생들 “지구에 도움되는 기술 연구해 뿌듯해요”

성황리 마친 한화사이언스 챌린지 2021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는 ‘한화사이언스챌린지(Science Challenge) 2021’이 지난달 2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5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오염 등으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구할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뽐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재학생팀 대상 차지
한화사이언스챌린지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참가자 수는 1만3000명 이상. 올해는 총 279팀, 558명의 고등학생이 출전했다.

이들은 ‘지구를 구하라(Saving the Earth)’라는 주제 아래 ▲에너지 ▲바이오 ▲기후변화 ▲물 등 4가지 테마를 골라 지구를 구할 아이디어를 연구했다. 이후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3월 초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올해로 10회째, 고교생 500여 명 참여
수상자에 상금과 해외탐방 참여 기회도
“인류 기여하는 과학영재 계속 응원할 것”

한화그룹은 이 내용을 토대로 1·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을 가렸다. 테마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 6개 팀, 바이오 분야 6개 팀, 기후변화 분야 3개 팀, 물 분야 5개 팀이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8월 21일 온라인을 통해 각자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는 참가자의 학교 정보를 가려 공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대상 수상자로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학년 백건우·조재인군(지도교사 김희순)으로 이뤄진 달려라 리아카팀이 선정됐다. 이 팀은 ‘태엽 스프링과 자동차 변속기 원리를 적용한 리아카 동력 연구’를 주제로 삼았다. 고가이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동력원을 배제하고 간단한 메

카니즘을 적용, 비용이 저렴한 친환경 동력을 구현했다.

심사위원들은 연구 주제의 창의성과 방법의 논리성, 결과의 신뢰성 면에서 달려라 리아카팀에 높은 점수를 줬다. 환경오염을 막을 뿐 아니라 폐지 줍는 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쉽게 리아카를 끌 수 있게 돕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건우·조재인군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 즐겁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상금, 해외탐방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한화사이언스챌린지 수상자들에게는 풍성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화그룹은 올해 대상팀에 4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금상을 수상한 2개 팀에는 각각 2000만원, 은상 2개 팀에는 각각 1000만원씩 상금을 줬다.

더불어 수상자들에게 해외탐방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준다. 해외탐방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스위스와 독일 등에 있는 유명 대학,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해외탐방 프로그램에서는 독일 포츠담 천체 물리학 연구소와 한화큐셀 독일 R&D센터, 함부르크 도시 녹색건축정보센터, 알프레드 베게너 극지해양연구소 등을 방문했다.

또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 모두에게는 한화그룹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사이언스챌린지에서 상을 받은 학생들 대다수는 현재 국내외 우수 대학에 진학해 생명과학,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절반 이상이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구영 한화솔루션 사장은 “한화사이언스챌린지에는 새로운 도전과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진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구를 살리며 인류의 삶과 행복에 기여하는 과학영재들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수 조선예류 기자



①



②



③

①본선 참가자들이 온라인에서 심사위원들과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②‘한화 사이언스챌린지 2021’ 대상의 영예를 얻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백건우(왼쪽), 조재인(오른쪽)군과 이구영 한화솔루션 사장.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화그룹 측은 수상자의 등신상을 제작했다.

③한화그룹은 코로나19 사태임을 감안해 올해 본선, 시상식 등 ‘한화사이언스챌린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사진은 비대면으로 이뤄진 한화 사이언스챌린지 시상식 장면.

한화그룹 제공

IB 디플로마 시험서 평균 39점 쾌거… 세계 명문대 진학 줄이어

(45점 만점, 올해 전체 평균 33점)

‘NLCS 제주’ 국제학교

제주에 있는 영국계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NLCS Jeju)가 아시아 명문 국제학교로 성장하고 있다. 2011년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첫 번째 국제학교로 개교해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학업성과다. 지난 5월에 치러진 국제 공통 고교 학위과정인 IB 디플로마 시험에서 재학생들은 평균 39점이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NLCS Jeju만의 혁신적인 교육 방식과 열정으로 가득한 학생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로 분석된다. NLCS Jeju는 NLCS런던 본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학생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NLCS 런던에서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지속적인 방문과 수업에 필요한 우수한 교사진도 직접 선발해 학교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NLCS Jeju는 ▲학문적 우수성 ▲폭넓은 경험 ▲글로벌 시민의식 ▲학교의 가치 ▲미래의 성공 ▲인성 등 6개의 교육목표를 통해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NLCS Jeju 관계자는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NLCS Jeju는 2021년 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중 112명의 학생이 IB 디플로마 시험에 합격하며 99%의 합격률을 보였다. IB 디플로마 시험(45점 만점)의 올해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이고 NLCS Jeju 졸업생은 이보다 6점이 높은 39점의 평균점수를 획득했다. 이 중 2명의 학생은 만점을 기록했고 48%의 학생들도 40점 이상을 취득했다. NLCS Jeju 관계자는 “40점 이상을 획득



한 학생이 전 세계적으로 9%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NLCS Jeju 학생들의 성과는 전체적인 수준이 높았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작년 졸업생들도 39점의 평균점수를 취득해 전 세계 IB 학교 중 2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도 우수한 성적으로 NLCS Jeju의 경쟁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저스틴 올리버 NLCS Jeju IB 코디네이터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량에 놀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뛰어난 학업적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생들이 IB에서 요구하는 학습자의 모습을 보여줘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대학 진학 현황도 두드러진다.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은 전 세계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45%의 학생들은 ▲UC버클리대 ▲뉴욕대 ▲존스홉킨스대 ▲카네기멜런대 등 미국 대학으로, 23%의 학생들은 ▲케임브리지대 ▲임페리얼대 ▲UCL(University College London)대

▲런던 정경대 ▲킹스 칼리지대 등 영국대학으로 진학을 선택했다. 그 외 ▲토론토대(캐나다) ▲맥길대(캐나다) ▲홍콩대 ▲홍콩과학기술대 ▲난양공과대(상가포르) 등 다양한 명문대로 진학하기도 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으로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자벨라 슬로진스카 대학진학상담부서는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았다”며 “졸업생들은 우수한 능력으로 세계 최상위권 대학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NLCS Jeju에서 시작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본교의 모토를 스스로 입증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성과에서 주목할 점은 NLCS 교육과

정의 우수성이 입증됐다는 점이다. 본교인 NLCS 런던이 영국 내 가장 높은 IB 점수를 기록했고, 본교인 NLCS 두바이도 글로벌 상위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NLCS Jeju 관계자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본교 학생들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며 “그간 고생한 학생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린 올드필드 NLCS Jeju 총교장은 “학생들의 열정과 뛰어난 재능에 놀랐다”며 “이러한 성과는 NLCS Jeju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이어 “IB 디플로마에서 평균 39점이라는 쾌거를 기록한 우리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각자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조선예류 기자

영국계 국제학교 NLCS Jeju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학생들. 올해 IB 디플로마 시험에 응시한 졸업생들은 39점의 평균점수를 획득했다.

NLCS Jeju 제공

‘독서토론논술 센터’ 운영할 예비창업자 도전하세요



리딩엠에서 책 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를 운영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리딩엠 제공

책 읽기와 글쓰기 전문 리딩엠이 본사의 지원을 받아 독서토론논술 교육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리딩엠 창업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대 이상 대학 졸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면접으로 1차 합격자를 가리고 이후 독서활동 자격증 과정 이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리딩엠 창업사관학교 선발 인원은 총 15명이다. ▲교육센터 창업과정(학원 규모) 10명 ▲교육센터 창업과정(교습소 규모) 5명이다. 선발 인원에게는 1000만원(교습소 500만원)의 현금지원금을 준다. 단, 현금지원금은 반드시 보증금,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비용으로만 지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맹계약금 50% 할인 ▲RAMS(독서활동매니지먼트솔루션) 무료 제공 ▲독서활동자격증 무료 수강 혜택도 준다.

또한 리딩엠 본사 교육장을 창업 준비 공간으로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리딩엠 본사 카페테리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회의실이나 빔프로젝트도 사용 가능하다.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습소·학원의 입지 분석, 시장분석 컨설팅 ▲최적 부동산 탐색 및 계약 지원 ▲자금조달 및 교육센터 창업 컨설팅 ▲근로계약 등 인사시스템 구축 ▲사업목표 및 방향 멘토링을 지원한다.

리딩엠 창업사관학교

최종 합격자에게 현금지원금 창업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

리딩엠 측은 “100세 시대를 맞아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터를 꾸리는 분이라면 도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적합한 지원자로는 ▲아이들과 소통을 잘하며 재미있는 교육을 잘할 자신이 있는 분 ▲고객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교육센터를 만들어 성공하고 싶은 분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며 때때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 ▲문제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선제로 대응할 수 있는 분 ▲책 읽기와 글쓰기가 모든 교과학습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분 등이다.

리딩엠은 ‘창업사관학교’ 사업과 관련해 24일 리딩엠 본사에서 대면 설명회를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15명을 선착순으로 입장시킬 계획이다. 2차 설명회는 9월 28일 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지원서는 리딩엠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지원서는 10월 4일까지 받는다. 면접을 거쳐 10월 18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에 발표한다.

한편, 리딩엠은 초·중·고학생 대상 ‘정규독서전문 프로그램’과 특허 기반 ‘독서활동솔루션(RAMS)’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필독 도서를 제한 없이 대출해 볼 수 있고 학교 활동, 진학과 연계된 도서 프로그램도 들을 수 있다. 독서 이력 관리와 과학·수학 도서 등을 중심으로 한 ‘M다빈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방종임 조선예류 기자

와이즈위클리논술

[조선일보 주최 교육기업 대상]

원격(zoom)수업 돌풍

비대면 논술 학습

홈스쿨 No.1 초등 논술, 와이즈위클리 원격(ZOOM)수업도 인기몰이중 !!

(다양한 영상, 사진자료 활용 학습 효과 극대화)

원격 와이즈위클리 논술 강점

최적화된 커리큘럼

최고의 논술 교재 와이즈 위클리로 수업

독서 논술 지도 교사

최강 경력의 실력있는 교사 선정

체계적인 관리

전국 지역지국의 체계적인 관리

전문적인 첨삭지도

논술 전문 강사의 세밀한 원격 첨삭지도

논술 전문기업

조선일보 선정 초등논술 부문 교육기업 대상

동영상 강의 서비스

매주차 저자 직강의 동영상 강의 서비스

원격 와이즈위클리 논술의 흐름

상담 및 회원 가입

01

교재 배송

02

담당 교사 해피콜

03

원격 학습 (ZOOM 활용)

04

논술문 작성 및 사진 촬영 교사에게 발송

05

비대면 첨삭지도

06

상담 및 회원 가입

01

담당지역에서 방문하여 상담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

교재 배송

02

본사에서 회원에게 월별 교재를 배송

담당 교사 해피콜

03

교사는 회원에게 해피콜을 하여 학습 일정과 요령을 설명

원격 학습 (ZOOM 활용)

04

회원과 교사 간에 ZOOM을 활용한 원격 학습

논술문 작성 및 사진 촬영 교사에게 발송

05

학습과정에서 작성한 논술문을 촬영하여 교사에게 발송

비대면 첨삭지도

06

담당교사는 논술문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첨삭한 후, 업로드하여 비대면 수업에 활용

(주)와이즈교육

www.wiseweekly.co.kr

와이즈교육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83 와이즈교육빌딩 7층

(주)와이즈교육 전국 지국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상담 전화 080-334-5566

알립니다

전국 초·중·고 대상 서민금융 글짓기대회

마감 D-1... 우편·홈페이지 접수 가능

서민금융진흥원과 신협중앙회, 어린이 조선일보가 '제2회 전국 초·중·고 학생 서민금융 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경제 의식을 심어주고 절약의 가치를 높여, 배려하는 상생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중·고 학생 누구나 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7일까지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75명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장상과 신협중앙회장상, 어린이조선일보상을 수여하고 장학금 등 부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나 학원을 통해 단체로 접수된 작품은 '지도교사상'과 '단체상'을 별도로 준다. 더불어 오(五)행사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상: 전국 초·중·고 학생

●응모 마감: 9월 7일(화)

●작품 형식: 산문, 운문, 표어 / 오(五)행사

●응모 방법: 단체접수, 개인 접수(1인 1편), 우편 또는 홈페이지 접수

●글짓기 주제(산문, 운문, 표어 중 택1)

▲산문/운문

①내게 돈이란 어떤 존재? 돈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②나의 특유 용돈 관리 비법

③코로나 시대의 우리 가족 경제활동

④슬기로운 저축생활, 20년 후 나의 모습

▲표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정부·금융기관 사칭) 피해 방지 표어

※특별상 오(五)행사: ①포·용·이·미·소 ②평·생·아·부·바

●문의: (02)724-7821~3 ●홈페이지: edu.chosun.com/gongmo



[주목! 이 프로그램] 서울미래유산 랜선 투어

서울시와 디지털조선일보가 함께 기획한 서울미래유산 인생투어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랜선 답사로 다가온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시점까지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답사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은 랜선 답사를 통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부터 풍물시장까지 청계천 일대의 서울 근현대사를 돌아보면서 초·중·고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K-패션의 원조 신평화시장

현재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K-패션의 시작점에는 70년대 신평화시장(新平和市場)이 있었다. 신평화시장은 1969년 12월에 개장한 의류전문 도소매상가다. 당시 일본·동남아·유럽·미주 등 전 세계에서 온 구매자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이었다.

청계천변을 따라 좌우로 길게 뻗은 신평화시장은 평화시장에서 옮겨온 100여 점포가 문을 열고 '성동상가'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이후 1978년 7월 '성동상가'에서 '신평화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9년 1월 신평화패션타운으로 개칭했다. 신평화시장은 오늘날 동대문시장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상가군의 하나이자, 대한민국의 의류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곳이다.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한 이유다.

◇책 향기가 나는 청계천 한책방거리

청계천 한책방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한책방 밀집 지역이다. 1960년대 노점 형식으로 운영되던 한책방들이 청계천 북계공사로 갈 곳이 없

어서자, 평화시장 일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동대문 청계천 양쪽으로 중고서점들이 다닥다닥 줄지어선 곳. 많은 종류의 서적들과 절판된 책들도 이곳에선 모두 보고 살 수 있다. 청계천 한책방거리는 교과서부터 참고서, 영어 원서, 사진, 해외 패션잡지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사고팔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곳이다. 근현대 시민 생활의 모습이 남아있는 장소다.

1960~70년대에는 2000여 개에 달했던 책방이 이제는 30여 곳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책 향기가 나는 한책방거리는 청계천을 따라 가을 산책을 즐기며 서울의 근현대사를 만나기에 좋은 공간이다.

서울 곳곳 영상으로 돌아보며
사회적 거리 두기 갑갑함 달래9월 3주부터 매주 새로운 주제 진행
공식 SNS 채널선 다양한 이벤트도

◇1960년대 패션의 메카, 동대문패션타운

최근 유튜브 유명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대문패션타운은 20세기 서울을 대표하는 패션 시장으로 꼽힌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한곳에서 이뤄지는 패션 클러스터이자 의류 산업 발전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패션몰로 흔히 '두타'라고 불리는 두산타워와 밀리오레가 있다. 1998년을 기점으로 백화점 형식의 패션몰을 도입해 시민의 쇼핑 편의성을 개선했다. 두산타워는 자체적으로 신진 디자이너를 육성해 독자적 브랜드를 키우는 동대문 패션산업의 대표 상가이다. 밀리오레 역시 의류 전문 도·소매 시장으로 IMF 때 동대문 열풍을 몰고 온 패션의 메카다.

현재는 온라인시장의 중요한 공급자이자 주체로서, 다가오는 유커머스(U-Commerce)의 중심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스마트시대에 맞는 다양한 역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서울 도시발전 기억을 간직한 청계천 고가도로 존치기념물

청계천 고가도로 존치기념물은 2006년 8월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할 때 남겨둔 교각 일부로, 현재 총 세 개의 교각이 남아 있다.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비우당교와 무학교 사이에 위치한다. 청계천 고가도로는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고속성장장과 근대화를 상징하는 시설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자가용의 보급으로 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교통 이용에 불편이 생겼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도로의 노후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통의 주축이었던 대형 차량의 진입이 제한됐다. 이에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가 확정됐고, 2006년 철거가 완료됐다.

◇우리나라 만물시장의 대표, 서울풍물시장

서울풍물시장은 옛 풍물과 일상생활용품, 관광, 토속 상품, 민속 먹을거리 등을 저렴하고 편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1950년대 전후로 형성된 종로구 황학동 도깨비 시장에서 시작했다. 당시 오래된 풍물 물건이나 상품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우리나라의 만물시장을 대표했다.

황학동과 청계천변 노점 상태로 운영 중이던 황학동 벼룩시장은 2004년 초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으로 이주해 운영을 이어갔다. 2006년에는 동대문운동장 공원과 사업이 발표되면서 관광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대표 풍물시장 개발을 위해 2007년 동대문구 신설동에 공사를 착수했다. 이때 노점 894점이 입주하면서 2008년 4월 서울풍물시장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췄다.

수백 년은 돼 보이는 각종 골동품과 희귀 레코드, 필름카메라, 축음기, 외국의 장식품 등 실생활에서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과거의 추억을 발견하고 옛날 생활 풍습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장터이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전통과 현대의 맛이 공존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쇼핑 명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9월부터 매주 새로운 주제로 랜선투어

한편 이번 투어는 9월 3주 차에 시작된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랜선 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계천 따라 걸으며 느끼는 가을의 정취'에서부터 '서울의 야경과 함께하는 근현대사 투어' '가을 낙엽 속 인사동 발자취 따라 걷기' 등 다양한 주제를 안고 더 많은 시민 걸음으로 찾아간다.



서울시 제공

서울미래유산 프로젝트는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소통 중이다.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 세대에 계 전달할 만한 유·무형의 미래유산을 소개하고 시민과 함께 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서울미래유산 SNS 공식 채널에서는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이달의 미래유산 이벤트를 매월 실시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서울 시민들의 추억을 간직한 서울미래유산 역사 사진 공모전과 아름다운 미래유산을 담은 서울미래유산 사진 공모전 등도 진행한다.

사진 공모전 일정과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미래유산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시 대표 소통 포털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서울미래유산 인생투어를 통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문화적 건강도 함께 회복하면 좋겠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미래유산 사업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경 조선예류 기자

취업에 강한!! 서경대학교

공무원 합격 128명

2022-2024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2021학년도 경기북부 유일

신입생 충원율 100% 전문대학!!

*입학정원 100명 이하제외

- ◆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국가자격증 취득 전국 최우수 대학**
- ◆ **응급구조과, 간호학과 국가자격시험 100% 합격**
- ◆ **국내·외 각종 경진대회 수상 전국 최우수 대학**
- 호텔외식조리과·식품영양과·뷰티아트과·반려동물과 경진대회 최다수상
- ◆ **산업체가 인정하고 졸업생이 다시 찾는 대학**
- 3, 4학년 과정 입학생 중 92.9% 본교 졸업생
- ◆ **2021~23학년도 고용노동부 주관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공모 사업 선정 15억 국비지원**

꼭꼭이아빠
유아교육과 김종석 교수

* 위 내용은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경기도 주요일간에 보도된 내용임.

* 2012~2021. 6. 30.까지 전국 전문대학 홈페이지지 비교검색 결과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